

사람·자연 공존 무주만의 도시재생

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 일부 수정... 12일 전북도에 제출

무주군이 도시재생 추진을 앞두고 건강도시 및 생태문명 개념 도입을 담은 변경(안)을 전라북도도에 오는 12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은 무주군이 가지는 장점을 살려 새롭게 건강도시계획과 생태문명 사업의 개념을 도입, 정주권 발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변경안은 관광문화 재생, 녹색 경제 재생, 친환경 주거지 재생을 통한 특화된 '무주만의 도시재생'에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신산업까지 아우르는 미래가치인 '생태문명'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건강도시로서의 무주라는 도시재생의 철학과 비전으로 전략계획에 담았다.

전략계획 내용은 ▲세계인이 찾는 청정·힐링의 관광 재생 ▲도시·농촌경계가 융합되는 경제 재생 ▲군민이 행복한 정주환경 재생이다.

군이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오는 18일 '전라북도 도시재생 위원회'를 거쳐 확정,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후 한 해 동안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무주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사업' 및 '무풍 어울림센터 proj'



지난 5월 열린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모습.

가 선정을 받았다.

또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설치된 '눈꽃마을 도깨비 시장' 사업, LH공모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사업(100호)에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군은 이밖에 KBS중계소 부지를 매입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무주군 김희욱 부군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생태 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전라북도의

생태문명 정책을 무주군의 도시재생에 적극 반영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로드맵'에 발맞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제도에 대응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열린 군수실' 본격 운영

군민 의견 수렴·소통 강화

장수군은 5일 장수군청 1층 작은 도서관 내에 위치한 열린군수실에서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열린 군수실' 운영을 시작했다.

장수군 '열린 군수실'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군민과 직접 소통

이 어려워진 점을 해소하고 민원과 건의사항 등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군수가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생생한 군민의 여론을 현장에서 수렴하는 소통 민원 창구이다.

이날 첫 시행한 '열린 군수실'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수로 설치 등 다양한 민원을 가진 주민들이 현장을 찾아

와 장영수 군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탄없이 대화를 나눴다.

'열린군수실'은 군정, 지역현안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군수와 직접 면담이 가능하며 군민들이 제안한 사항 중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실제 현장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은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군민과의 소통이 제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열린 군수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4시 2차례에 걸쳐 군수가 군민과의 상담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4시에는 부군수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장수군민이라면 군청 홈페이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열린 군수실 운영 관련 문의사항은 장수군 행정지원과 군민소통팀(063-350-2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인구 증가율 전북 1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5년 전보다 2.16%p 증가

진안군은 5일 통계청 발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주하는 총인구 증가율이 전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진안군의 총인구가 2015년 2만2,886명에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2만3,380명으로 494명 늘어 2.16%p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북 전체인구수는 183만 4,114명에서 180만 2,766명으로 3만 1,348명 줄어 -1.71%p의 감소율을 보였다.

5년 전보다 인구가 늘어 플러스 증감율을 기록한 곳은 도내 4개 시군으로 그 중 진안군이 2.16%p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진안군 내에서는 전주와 가장 가까운 부귀면의 증가율이 9.14%p로 가장 높았으며, 안천면 4.41%p, 성수면 3.89%p, 정천면 2.96%p, 상전면 2.79%p, 진안읍 1.95%p, 백운면 1.90%p가 뒤를 이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임신·출산·양육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아토피 안심학교인 정천면 조림초등학교 인근에 아토피치유마을을 조성해 학생과 가족을 유치하고, 소규모 마을 지원 사업 조례 제정을 통해 2세대 이상 집단 이주민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체계적인 귀농귀촌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이 인구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귀농, 귀촌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농원 등을 운영하고, 귀농귀촌정책 및 영농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면서 보다 강력한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해온 노력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주군, 온실현황·에너지이용 실태조사

무주군이 오는 15일까지 '2021년 온실현황(시설원예시설 현황)과 에너지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통계조사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군 소재지에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온실현황과 에너지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토대로 시설원에 에너지 이용 구조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무주군의 경우 등록된 농업경영체 263농가를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를 통한 조사가 진행된다.

방문조사는 온실면적이 1,500㎡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원을 투입해 조사할 예정이며, 1,500㎡ 미만은 전화조사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 항목은 경영체명, 온실유형, 규격, 피복재, 재배작물, 보존시설 등 36개 문항으로 모든 조사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 경우 등록된 농업경영체 263농가를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를 통한 조사가 진행된다.

방문조사는 온실면적이 1,500㎡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원을 투입해 조사할 예정이며, 1,500㎡ 미만은 전화조사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 항목은 경영체명, 온실유형, 규격, 피복재, 재배작물, 보존시설 등 36개 문항으로 모든 조사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된다.

장수군 "주민세 사업소분 8월 신고 납부하세요"

장수군은 작년까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가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8월 한달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의 기본세액이 적용되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장수군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중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송달받은 납부서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1일 100,000분의 25)가 세액에 가산되어 부과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진안군은 5일 질병관리본부, 전북대학교와 함께 표본추출로 선정된 진안군민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보건소장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한 6명의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원들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등 총 18개 영역 163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군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원들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체온 확인·일일 건강확인(건강체크앱 활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키, 몸무게 등 신체계측은 실시하지 않는다.

/진안=우태만 기자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추천지역아동센터에차량지원

진안군 주천면(면장 김사흠) 추천지역아동센터는 5일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로부터 아이들의 발이 되어줄 새 차량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주천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은경)는 13년간 운행하던 차량이 있었지만, 노후화 및 속도제한장치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폐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

주천면은 전체면적이 96㎢에 이르는 넓은 면적으로 매일 아동들의 귀가에만 50km 이상의 거리를 통행하고 있다. 그래서 차량을 폐차한 후 센터 이용 아이들은 '행복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모든 야외 활동이나 체험학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차량지원으로 주천지역의 아동들이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